

# ‘자꾸’의 기원에 대한 시고(試稿)

이상신\*

## 〈차 례〉

1. 서론
2. 어미 ‘-고’ 활용형의 부사화
3. 활용형으로서의 ‘잡고’
4. ‘잡고’의 ‘잡-’과 ‘대고’의 ‘대-’
5. ‘자꾸’의 음장과 혼효
6. 결론

### [국문초록]

‘자꾸’와 ‘자주’는 첫 음절이 동일하고 의미도 유사하여 어원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쉽다. 하지만 중세국어에 이미 나타나고 어원도 명확한 ‘자주(<조조>)’와는 달리 ‘자꾸’는 어원이 불명확하다. ‘아’와 ‘오’가 구분되는 제주방언에서 ‘자꼬’(“자꾸”)와 ‘조주’(“자주”)로 첫 음절이 달리 나타나므로 표준어 ‘자꾸’와 ‘자주’의 기원적 어기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주’의 기원을 ‘쫓-’에 부사파생접미사 ‘-오’가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것에는 어떠한 의문도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자꾸’의 기원이다. ‘자꾸’는 개화기 자료와 현대 제주방언에서 ‘잡고’로 나타나서 활용형 ‘잡-+-고’에 기원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 본고는 ‘자꾸’에 대한 이와 같은 기존의 기원론에 재고의 여지가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첫째, ‘-고’에 의한 활용형이 부사가 될 수 있음을 보았고(2장), 둘째, ‘잡고’가 기원적으로 어미 ‘-고’에 의한 활용형일 가능성이 큼을 주장하였고(3장), 셋째, 기원적으로 ‘잡고’는 “to continue, to be long”과 “to connect”를 뜻하는 알타이 조어 ‘잡-’의 활용형일 가능성을 상정해 보았고(4장), 넷째, 현대 방언에서 적지 않게 보이는 ‘자 : 꾸’의 장음은 ‘대고’형 방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5장).

[주제어] ‘자꾸’, ‘자주’, ‘잡고’, 어원, 활용형, 부사, ‘대고’

\*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서론

‘자꾸’와 ‘자주’는 어원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쉽다.<sup>1)</sup> ‘자꾸’와 ‘자주’는 첫 음절이 동일하고 의미도 유사하기 때문이다(‘자꾸’와 ‘자주’의 의미 차이는 리단(2017) 참조).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 (1) ㄱ. 자꾸 「부사」 여러 번 반복하거나 끊임없이 계속하여.  
 ㄴ. 자주 「부사」 같은 일을 잇따라 잦게.<sup>2)</sup>

이런 선입견은, 중등과정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윤선도(尹善道)의 『오우가(五友歌)』 둘째 수의 ‘즈로’에 생각이 미치면 더욱 강화된다.<sup>3)</sup> 하지만 이와 같은 선입견은 말 그대로 선입견에 불과하다. 『표준』에서 표제어 ‘자꾸’에는 어원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자주’에는 “〈즈조〈석상〉[←젯+-오]/즈로〈석상〉”와 같은 어원이 제시되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sup>4)</sup> 중세국어에 이미 문증되고(“즈조 듣즈반 마룬”(『釋譜詳節』 6: 11), “누늘 즈조 김즈기며”(『月印釋譜』 2: 13) 등) 어원도 명확한 ‘자주’와는 달리 ‘자꾸’는 어원이 불명확하다. 이 둘의 어원이 다른 현대국어의 방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 이를테면 백문식(2014: 414, 418)에서는 ‘자꾸’를 “꺾(다)[<꺾다; 빈(顛)+고]로 분석된다.(젯+고/오→자꾸)”라, ‘자주’를 “형용사 꺾다(<꺾다)[顛(빈)]의 어근 ‘젯-’에 부사화 접사 ‘-오/우’가 결합된 파생부사다.(즈조)자조(자주)”라 하여 둘 모두 형용사 ‘젯(꺾)’을 어기로 하는 부사에서 온 것으로 보았으나 후술될 바와 같이 이는 사실과 다르다.

2) 『표준』에는 ‘자주’의 유의어로 ‘잦추’(“잦거나 잦 상태로”)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동사 ‘잦추-’의 어간이 그대로 부사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조항범 2005: 229).

3) “구름 빗치 조타 흥나 검기를 즈로 흥다”(『孤山遺稿』 6: 하편별집), 『오우가』는 근대국어 자료인데 중세국어에서도 ‘즈로’가 존재한다. “부테 즈로 니르샤도 從 흥 습디 아니 흥더니”(『釋譜詳節』 6: 10), “즈로 記芻을 듣즈오시니”(『法華經諺解』 3: 55) 등.

4) 『표준』의 뜻풀이에 “잦게”라는 표현을 쓴 ‘자주’와는 달리 ‘자꾸’의 뜻풀이에 형용사 ‘잦-’ 관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 제주방언의 ‘자꾸’와 ‘자주’

ㄱ. 자꼬(čakko, 玄平孝 1962 : 12, 532, ‘자꾸’)<sup>5)</sup>

ㄴ. 즈주(čožu, 玄平孝 1962 : 20, 533, ‘자주’)

위 (2)와 같이, ‘아’와 ‘으’가 구분되는 제주방언에서 ‘자꼬’와 ‘즈주’로 첫 음절이 달리 나타나므로 표준어 ‘자꾸’와 ‘자주’의 기원적 어기는<sup>6)</sup> 다르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위 『표준』의 어원론과 같이 ‘자주’의 기원을 ‘जू-’에 부사파생접미사 ‘-오’가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것에는 어떠한 의문도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자꾸’의 기원이다.

‘자꾸’의 기원에 대한 최초의 발언은 Ramstedt(1949 : 23)에서 이루어졌다. ‘čapko’ 항목에서 ‘자꾸’를 동사어간 \*잡(čap~čab)-’의 부동사형(converbal formation)으로 보았던 것이다.<sup>7)</sup> Ramstedt(1949 : 23)에 따르면 이 \*잡-’은 “to continue, to be long”의 의미를 가지는데,<sup>8)</sup> 이 \*잡-’은 우리에게 익숙한, “執”을 뜻하는 ‘잡-’이 아니라 알타이 제어의 분석을 통해 나온 재구형(再構形)이다.<sup>9)</sup> Ramstedt의 이런 주장은 그가 Gale의 『韓英字典(A Korean-English Dictionary)』(1911년판)에서 ‘잡고’를 보았기에<sup>10)</sup>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전만이 아니라 『한불저언(Dictionnaire Coréen-Français)』(L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1880)이나 『朝鮮語辭典』(朝鮮

5) 표준어 ‘자꾸’의 제주방언으로 ‘잡꼬’(čapko, 玄平孝 1962 : 18, 532)도 있다.

6) 여기서의 ‘어기’는 ‘어간’과 ‘어기’를 아우르는 잠정적인 용어로서, ‘자꾸’와 ‘자주’ 둘 모두가 기원적으로 파생어임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7) 이 주장에 대해 전경미(1995 : 592)는 ‘자꼬’가 동사 ‘जू-’에 어미 ‘-고’가 결합되어 파생된 부사이지 \*čap-(čab-)-’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정밀한 논의라 하기는 어렵다. 단적으로, ‘जू고’로부터 개화기나 현대 제주방언의 ‘잡고’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반해, ‘잡꼬>잡꼬>작꼬>자꼬>자꾸’의 변화는 연구개음화와 비어두 ‘오’우’의 변화 등으로 자연스럽게 설명이 가능하다. ‘잡꼬>잡꼬>작꼬>자꼬’의 연구개음화 등은 ‘잡(雜)갯’으로부터 온 ‘자 : 갯’(이 기갑·고광모·기세관·정계문·송하진 1998 : 518)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8) Ramstedt(1949 : 23)에 ‘?’가 붙어 있기는 하다.

9) 우리에게 익숙한 ‘잡-’(執)은 Ramstedt(1949 : 23)에서 “to take, to obtain, to catch”의 의미의 ‘čapta’로 제시되어 있다. 본고 4장에서 “屠”의 의미와 관련하여 논의될 ‘잡-’도 Ramstedt(1949 : 23)에서 “to kill, to slaughter-animals”의 의미의 ‘čapta’로 제시되어 있다.

10) Ramstedt(1949 : 23)의 ‘čapko’ 항목의 “G 818”이 이를 알려주고 있다. “G 818”은 『韓英字典』(818쪽)을 의미한다. “잡고 s. Persistently; indefatigably; untiringly; unceasingly.”(『韓英字典』818쪽).

總督府, 1920)과 『朝鮮語辭典』(文世榮, 1938)에서도 ‘잡고’가 보이고<sup>11)</sup> 이들과 함께 표준어 ‘자꾸’의 제주방언 ‘잡고’(čapko, 玄平孝 1962 : 18, 532)가 있는 것으로부터도 ‘잡고’가 의심스러운 존재가 아님은 물론이고 ‘잡고’의 사멸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님도 알 수 있다. 아울러 Starostin · Dybo · Mudrak(2003 : 1528)에 따르면 국어 ‘잡-’(執)의 알타이 조어(祖語) \*šap'u'에 이미 “to connect”라는 뜻이 있으므로 李基文(2012 : 94)에서 ‘잡고(자꾸)’를 동사 ‘잡-’의 활용형으로 추정된 논의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정도 되면 ‘자꾸’의 기원이 ‘잡-+-고’임을 의심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논의의 길목에서 맞닥뜨리는 논점들 모두가 꼼꼼히 검토된 것 같지는 않다. ‘자꾸’가 ‘잡-+-고’로부터 형성된 것이라고 할 때, 첫째, ‘-고’에 의한 활용형이 부사가 될 수 있는지(2장), 둘째, ‘잡고’가 기원적으로 어미 ‘-고’에 의한 활용형인지(3장), 셋째, 기원적으로 ‘잡-’의 정체는 무엇인지(4장), 넷째, 남은 문제로, 현대 방언에서 적지 않게 보이는 ‘자 : 꾸’의 장음은 어떻게 설명되는지(5장) 등의 문제가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 서너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펴되, 그 과정에서 ‘자꾸’에 대한 기존의 기원론에 재고의 여지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sup>12)</sup>

## 2. 어미 ‘-고’ 활용형의 부사화

본 장에서는 어미 ‘-고’가 통합되어 있는 활용형이 통시적으로나마 부사

11) 『한불증언』(1880 : 528) : “잡고, TJP-KO. Beaucoup (devant un verbe), en grand nombre, longtemps, etc...”, 『朝鮮語辭典』(1920 : 708) : “잡고 副 頻りに. 屢. (잡구).”, 『朝鮮語辭典』(1938 : 1190) : “잡고 副 『자꾸』에 보라.”.

12) 앞에서 언급한 중세국어의 ‘즈로’에 대한 기원적 형태론도 필요하지만 이는 지금의 필자로서는 본 외의 일로서, ‘즈로’를 형용사 ‘줄-’(細小)을 어기로 하는 파생어로 본 劉昌惇(1971 : 171)과 이를 가상의 ‘ㄷ’ 불규칙 용언 \*즈-’을 어기로 하는 파생어로 본 김양진(2011 : 257)을 선행 연구로 들 수 있을 따름이다. 전자에는 의미론적 설명이 보충되어야 하고 후자에는 \*즈-’의 존재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즈로’의 현대국어 평북과 함남의 방언형인 ‘자루’(김병제 1980 : 119)를 들어 둔다.

가 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용언의 부사 파생은 접미사 ‘-이/히/오/우’ 정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이 부사로 바뀌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서, 중세국어의 ‘비르서(비릇-), 모다(몬-), 가시아(가시-), 마초아(마초-), 느외야(느외-)’ 등을 어미 ‘-아/어’에 의한 활용형이 부사로 바뀐 몇 예로 들 수 있을 뿐이다(구본관 1998 : 309~310). 이런 점에서 어미 ‘-고’에 의한 활용형이 부사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하기에는 안심이 되지 않는 구석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런 불안은 원래 어미 ‘-고’에 의한 활용형이던 것이 부사로 바뀐 예가 몇 있어 어느 정도 해소된다.<sup>13)</sup> 『표준』에서 찾은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어미 ‘-고’ 활용형에 기원하는 현대국어 부사

- ㄱ. 그리고 : 단어, 구, 절, 문장 따위를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 부사.
- ㄴ. 대-놓고 : 사람을 앞에 놓고 거리낌 없이 함부로
- ㄴ´. 들때-놓고 : 꼭 집어 바로 말하지 않고.
- ㄷ. 대고<sup>1</sup> : 무리하게 자꾸. 또는 계속하여 자꾸.
- ㄷ´. 마구-대고 : 마구 무리하게 자꾸.
- ㄷ´´. 무턱-대고 : 잘 헤아려 보지도 아니하고 마구.
- ㄷ´´´. 허청-대고 : 확실한 계획이 없이 마구.
- ㄹ. 이윽고 : 얼마 있다가. 또는 얼마쯤 시간이 흐른 뒤에.
- ㅁ. 집고<sup>1</sup> : 무엇을 미루어 생각할 때에, 꼭 그러할 것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 ㅂ. 결단코(決斷코), 결사코(決死코), 결코(決코), 기어코(期於코), 기필코(期必코), 단연코(斷然코), 단정코(斷定코), 대정코(大定코), 맹세코(盟誓코), 무심코(無心코), 분명코(分明코), 생심코(生心코), 잠자코, 정녕코(丁寧코), 필연코(必然코), 한사코(限死코)

13) 어미 ‘-고’에 의한 활용형이 부사로 바뀐 예는 최형용(2003 : 97)에 이미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본고의 (3)과 부분적으로 겹친다. 아울러, 현대국어에서 찾을 수 있는, 활용형이 부사로 바뀐 예 전반이 최형용(2003 : 220~221)에 정리되어 있어 중세국어의 ‘비르서’ 등이 보이는 예외성이 다소나마 낮아질 수 있다.

기원적으로 어미 ‘-고’에 의한 활용형 중 현대국어에서 부사로 쓰이는 어휘로 위 (ㄱ~ㅁ)의 9개와 (ㅂ)의 16개, 합해서 25개를 찾을 수 있다. (ㄱ~ㅁ) 중 ‘들때놓고, 허청대고, 이욱고, 집고’는 활용형인지 의심스러울 수 있으나, ‘들때놓고’는 북한어에 ‘들때여놓다’가 있고(“꼭 집어 바로 말하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다.”), 의미상의 거리가 없지 않지만, ‘허청대고’는 표준어 ‘허청대다’가 있어(“다리에 힘이 없어 잘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다. ‘허청대다’보다 거센 느낌을 준다.=허청거리다.”) 활용형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욱고’와 ‘집고’도, 확신하기는 어려우나, 관련된 어휘로 ‘이숙흐-’(‘이숙흐야, 『救急簡易方』 1 : 46)로부터 온 ‘이숙하-’(“『1』 밤이 꽤 깊다. 『2』 지난 시간이 얼마간 오래다.”)와 비표준어 ‘짚고’가 있어 활용형일 개연성이 크다. (ㅂ)의 16개는 모두 접미사 ‘-하-’의 ‘ㅂ’ 탈락 및 축약에 의한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기원적으로 어미 ‘-고’에 의한 활용형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sup>14)</sup> (3)의 25개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실례가 없지 않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는 이 예들을 통해 ‘-고’에 의한 활용형이 통시적으로 부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원적으로 부사파생접미사가 어미로서의 용법과 접미사로서의 용법을 모두 가지고 있던 상태, 즉 부사와 부사형이 적어도 형태적으로는 구분되지 않던 상태를 가정하면(李賢熙 1994 : 75~79) ‘잡고’와 관련하여 다른 말을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檀等 ヲ 1 1 1 及 智 2 2 2 能 3 3 3 不退轉地 4 4 4 至 5 5 5 舍 6 6 6 矣(『金光明經』 3 : 5 : 14~15, 鄭在永 1998 : 768~769), 처삼 들 적브터 百千劫에 니르리(『月印釋譜』 21 : 46)와 ‘其心樂 7 7 7 隨 8 8 8 說法 9 9 9 華嚴經』 14 : 18 : 6~7, 李賢熙 2009 : 148~149), 그 가운데 구름 氣運이 는는 龍을 조초 잇도다(『杜詩諺解』 16 : 31, 李賢熙 2009 : 136)에서 부사라기보다는 활용형에 가까운 ‘니르리’와 ‘조초’를 볼 수 있고, ‘그 菩薩을 자바 남기 모달 빼스바 뒷더니(『月印釋譜』 1 : 6)의 ‘뒷더니

14) (ㅂ)에 제시된 부사들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배영환(2010)을 참고할 수 있다. 한편, ‘잡자코’는 『표준』의 어원론(“< 줌즈코 < 석상) ← 줌즈(潛潛)+흐 -+-고”)에 의지해 제시하였지만 일부 방언에서 보이는 ‘잔죽코(이상규 2000 : 422) 등을 고려하면 재고의 여지가 없지 않다.

나’에서 어미 ‘-우’를 설정할 수 있기(김완진 1986=2000 : 94) 때문이다. 접미사로서의 기능이 약하기는 하나 우리의 어미 ‘-고’도 고대국어에서 어미적 용법과 접미사적 용법을 모두 지니고 있었으므로(장윤희 2006 : 107~110), ‘잡-+-고’가 아예 기원적으로 파생부사였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문증례를 발견할 수 없어 이는 가정에 불과할 따름이다.

지금까지 간략히 어미 ‘-고’에 의한 활용형이 부사로 바뀔 수 있음을 보았다. 본 장을 마치기 전에 잠시 (3ㄷ)의 ‘대고’에 주목하고자 한다. ‘대고’ (“무리하게 자꾸. 또는 계속하여 자꾸.”)와 ‘자꾸’ (“여러 번 반복하거나 끊임 없이 계속하여.”)의 의미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부사 ‘대고’는 보조용언 ‘대-’나 접미사 ‘-대-’와도 의미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4) 보조용언 ‘대-’와 접미사 ‘-대-’

ㄱ. 「보조 동사」 대다: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그 행동의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는 말.

ㄴ. 「접미사」-대다: ‘그런 상태가 잇따라 계속됨’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위 (4)는 『표준』에서 가져온 것인데, (ㄱ)에서 “반복”이,<sup>15)</sup> (ㄴ)에서 “그런 상태가 잇따라 계속됨”이 주목된다. (3ㄷ) ‘대고’의 “자꾸”와 이어지기 때문이다. 위의 보조용언 ‘대-’와 접미사 ‘-대-’는 기원적으로 동사 ‘대-’로부터 온 것일 가능성이 크고(이현희 2009 : 185), (3ㄷ)의 ‘대고’도 동사 ‘대-’로부터 온 것으로 보인다.<sup>16)</sup> ‘대고’와 ‘대-’의 첫 음절이 장모음인 접미사 한 근거가 되겠는데, 이와 같이 보조용언 ‘대-’와 접미사 ‘-대-’는 부사

15) 박선옥(2004)에 따르면 보조용언 ‘대-’는 원형 의미로 “미완료의 반복상 의미”를 가지고, 이로부터 나오는 “강조”와 “정도의 지나침”이라는 판단 의미” 등을 아울러 가지고, 남기심·고영근·유현경·최형용(2019 : 112)에 따르면 보조용언 ‘대-’는 “그 행동의 정도가 심함”이라는 ‘강세’의 의미와 “반복”의 의미를 가진다.

16) 동사 ‘대-’로부터 ‘대고’가 나왔다는 견해는 임흥빈(2007)에서 볼 수 있는데, ‘대고’를 부사가 아니라 활용형으로 본 점(“대고’와 같은 형식으로 쓰여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 주기 어렵거나 이해되기 어려운 말이나 행동을 되풀이하는 뜻을 나타낸다.”, 185쪽)은 『표준』과 다르다.

‘대고’와 통하는 바 많으므로 ‘대고’의 기원을 찾으면 보조용언 ‘대-’와 접미사 ‘-대-’도 같은 곳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sup>17)</sup> 이어서 이 ‘대고’를 통해 ‘자꾸’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3장과 4장에서 좀 더 들어가 보기로 한다.

### 3. 활용형으로서의 ‘잡고’

본 장에서는 ‘잡고’가 기원적으로 활용형, 구체적으로는 어미 ‘-고’에 의한 활용형이 맞는지를 검토하되 앞 3장 (3ㄷ) ‘대고’의 방언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우회(迂廻)하여 이를 시작하고자 한다. ‘자꾸’의 방언형으로 이 검토를 시작하지 않는 것은, ‘자꾸’의 방언형은 ‘대고’형을 빼고 나면 ‘자구, 자꼬, 자 : 꼬, 자 : 꼭, 자꾸, 자 : 꾸, 자꾸 : , 작꾸, 짜꾸, 차꼬, 차꾸’(崔鶴根 1978 : 1125) 정도에 불과하여 방언량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방언형도 단조롭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잡-’과 ‘자꾸’는 의미상의 거리가 가깝지 않아서, 이 의미의 차이 때문에 ‘잡고’가 활용형인지 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공전(空轉)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기존의 방언 자료집에서 ‘자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대고’형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된다.<sup>18)</sup>

17) 보조용언 ‘대-’와 접미사 ‘-대-’의 기원을 이현희(2009 : 185)는 ‘다히-’로 보고 있다(“달다(接, 觸, 着) → 다히다(달게 하다) → 대다(본용언, 달게 하다, 잇달게 하거나 잇달다) → 대다(보조용언, 행동을 반복하다) → -대다(접미사, 반복)”).

18) 소설 등에서도 볼 수 있다(표기는 원문 그대로임). “윤희는 번연히 남편 제호가 아닌 것을 역력히 알아차렸으면서 상관않고, 대고 머쓰린다.”(『濁流』(채만식), 『소설어사전』, 김윤식·최동호, 1998, 고려대학교 출판부, 390쪽), “계몽이는 필경 암상이 나서, 대군 지청구를 한다.”(『濁流』(채만식), 『소설어사전』, 390쪽), “소녀가 허수아비 줄을 잡더니 흔들어댄다. 허수아비가 대군 우쭐거리며 춤을 춘다.”(『소나기·별』, 황순원, 2015, 교보문고, 14쪽), “귀까지 잡기는 물속에 사지를 쭉 뻗고 나가넘어저서는 눈을 뒤집어쓰고 입을 대군 히물거렸다는 것이다.”(『소나기·별』, 92쪽), “이 새끼가 왕이 안 되고 대꾸만 거룩하게 되가잖아!”(『老子哲學 이것이다』, 김용옥, 1989, 통나무, 16쪽). 채만식은 전북 군산(우구), 황순원은 평남 대동, 김용옥은 충남 천안 출신이다.



(5) ‘대고’의 방언

- ㄱ. 대애구(“잇따라 거듭하여”, 함북 출신의 중앙아시아 이주 한민족, 광충구 2011 : 106, 283) / 다꾸(함북, 리운규·심희섭·안운 1992 : 103)
- ㄴ. 대애구(“자꾸만”, 함남, 정승철 2018 : 106(사진 7))
- ㄷ. 대 : 구(평북, 金履浹 1981 : 164) “대구 조루다”(자꾸 조르다)
- ㄹ. 다꾸, 대구, 대이구(황해, 황대화 2007 : 412)
- ㅁ. 대구(경기, 김계곤 2001 : 275)
- ㅂ. 달구, 들구(경기, 김계곤 1973 : 35)
- ㅅ. 다이구(이하 모두 충남, 김병제 1980 : 52) / 대 : 구(김병제 1980 : 60) / 대이구(이걸재 2009 : 125, 김병제 1980 : 61) “그르키 대이구 보채두 줄게 읍써.” / 대이꾸(이걸재 2009 : 125)
- ㅇ. 달꾸(이하 모두 충남, 이걸재 2009 : 119) “뭘 그리 달꾸 달란디야.” / 땀꾸(이걸재 2009 : 127) “그르키 땀꾸 보채두 줄게 읍써.” / 땀꾸(이걸재 2009 : 127)
- ㅈ. 대 : 구(강원, “대 : 고. 무리하게 자꾸. 또는 계속하여 자꾸.”, 박성종·전혜숙 2009 : 138) “니두 참 대구 먹어댄다.” “지녔이 좀 늦었드이 을매나 먹어대는지, 대구 먹어댄다 했아.”
- ㅊ. 대고(강원, “대어 놓고, 자꾸. 계속하여.”, 이경진 2002 : 104) “쌍디이(쌍둥이)를 나노니(낳아놓으니) 예미(어미) 젓을 들어서 대고 빨아대더라.”
- ㅋ. 대 : 꾸(경북 북부(영주, 봉화), 崔鶴根 1978 : 1125) / 대구(경북 북부(안동), 류창석 2007 : 32)

(5)의 ‘대고’형 방언형들은 형태적 관점에서는 표준어 ‘자꾸’의 방언형이라 기보다는 앞 장 (3ㄷ) ‘대고’의 방언형들이라 해야겠지만, 崔鶴根(1978) 등의 방언 자료집에서 이 둘이 구별되지 않은 채 제시된 것으로부터도 추정할 수 있듯이, 의미적 관점에서는 ‘자꾸’형과 ‘대고’형은 거의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sup>19)</sup> 이런 점을 전제로 두고, ‘대고’형과 관련된 논의를 ‘달구’ 등과

19) Gale의 『韓英字典(A Korean-English Dictionary)』(1897년판)에서 ‘잡고’는 “s. Persistently; indefatigably; untiringly; unceasingly.”(718쪽)라, ‘대고’는 “l. (구) Persistently; unceasingly.” (624

같은 ‘ㄹ’형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이들은 (5b)과 (o)에서처럼 경기와 충남에 분포하고 있어 일정한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방언형 ‘달구, 들구, 달쿠, 델구, 델꾸’ 중에서 ‘델구’와 ‘델꾸’를 ‘달구’ 및 ‘들구’와 ‘대구’ 및 ‘대꾸’의 혼효형으로 보면<sup>20)</sup> ‘달구, 들구, 달꾸’가 남는다. 여기서 ‘달구’와 ‘달꾸’의 ‘ㅌ’와 ‘들구’의 ‘ㄹ’를 고려하면 이들의 선대형으로 \* $\text{[dlX]}$ 를 재구할 수 있고 이는 현대국어의 동사 ‘달-’의 의미(『표준』의 “**1** 『8』 물건을 잇대어 붙이다.”)를 고려하면 그럴듯한 형태라 할 수 있다.<sup>21)</sup> 실제로 현대국어의 동사 ‘달-’의 중세국어형으로 ‘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쯤에서 ‘입에 달고 다니다’(“**1** 말이나 이야기 따위를 습관처럼 되풀이하거나 자주 사용하다. 『2』 먹을 것을 쉴 새 없이 입에서 떼지 아니하고 지내다.”)나 ‘(술, 담배, 병 등을) 달고 살다’와 같은 표현을 상기하고자 한다. 이 표현에 포함되어 있는 ‘달고’가 의미적으로나 형태적으로나 우리의 ‘달구, 들구, 달꾸’와 유사한 존재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입에 달고 다니다’나 ‘달고 살다’의 ‘달고’가 그렇듯이 ‘달구, 들구, 달꾸’를 ‘먹고, 입고, 자고’와 같이 기원적으로 어미 ‘-고’에 의한 활용형으로 보면<sup>22)</sup> 위 (5)의 나머지 ‘대고’형도 그럴 가능성이 생긴다. 마침 (츠)의 ‘대고’가 있어 어미 ‘-고’의 개연성을 더 크게 느끼게 한다. 이로써 ‘달구’ 등과 ‘대고’ 등이 어미 ‘-고’에 의한 활용형일 가능성이 큼을 보았는데,<sup>23)</sup> 의미가 비슷하다고 하여 형태론적 구성까지 같다는 보장은 없지만, ‘달구’와 ‘대고’의 형태론적 구성은 우리의 ‘잡고’까지도 같은 구성, 즉 어미 ‘-고’에 의한 활용형임을 강력하

쪽)라 되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대고’의 “1.”은 첫음절이 장음임을 나타내며 “(구)”는 ‘대구’로도 쓰임을 나타낸다.

20) ‘ㄹ’을 감안하면 [ɔy] 변화에 의해 ‘달구’ 등이 ‘델구’ 등으로 변화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물론 ‘달구’와 ‘대구’는 [ɔy] 변화의 변화 전과 변화 후의 형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21) 필자의 방언(경북방언)인 듯하지만, “취지 말고 달아서 계속하자.”와 같은 문장의 ‘달아서’에서도 동사 ‘달-’의 “물건을 잇대어 붙이다”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

22) 이렇게 보면 ‘달구, 들구, 달꾸’를 통해, ‘달-’과 함께 중세국어 ‘들-’의 현대국어 반사형으로 ‘들-’ 및 ‘달-’로부터 재구조화된 ‘달-’이 존재할 법도 하지만 보이지 않아 본 논의의 다소간의 약점이 된다. 궁색하지만, ‘달-’(ㅈ)의 충남방언형으로 ‘달-’이 존재하는 것(崔鶴根 1978 : 1192)에서 우리의 ‘달-’도 존재할 개연성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3)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임흥빈(2007 : 185)에 이미 ‘대고’가 동사 ‘대-’의 활용형임이 지적된 바 있다.

게 암시하고 있다. 의미적 유사 혹은 일치는 물론이거니와 ‘달구’ 및 ‘대고’의 ‘고(구)’와 ‘잡고’의 ‘고’가 우연 이상의 형태적 일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본 장에서는 ‘잡고’가 어미 ‘-고’에 의한 활용형임을 ‘달구’와 ‘대고’ 등을 통해 주장하였다. 그러면 ‘잡고’의 ‘잡’은 어떤 ‘잡-’의 어간이고 ‘대고’형 방언의 ‘대-’는 무엇인가. 후자는 2장 말미에서 보았던 ‘대-’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을 듯하지만, 이 둘에 대해 다음 장에서 다시 들여다 보자.

#### 4. ‘잡고’의 ‘잡-’과 ‘대고’의 ‘대-’

본고 1장과 2장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본 장에서는 ‘잡고(자꾸)’의 ‘잡-’의 정체를 ‘대고’의 ‘대-’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원과 형태 변화의 관점에서 ‘자꾸’와 ‘대꾸’의 관계부터 생각해 보려 한다.<sup>24)</sup> 이 둘이 동일 기원에서 나왔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로 나누어 보면, 전자는 다시 다음과 같이 세 경우로 나누어 나타낼 수 있다.

(6)

|            |    |    |
|------------|----|----|
| ㄱ          | ㄴ  | ㄴ  |
| X          | X  | X  |
| ↙ ↘        | ↓  | ↓  |
| 자꾸      대꾸 | 자꾸 | 대꾸 |
|            | ↓  | ↓  |
|            | 대꾸 | 자꾸 |

‘자꾸’와 ‘대꾸’의 기원을 ‘잡-+-고’로 간주하면 위 (6)의 어느 것으로의

24) 표준어 ‘자꾸’에 맞추기 위해 ‘대꾸’를 ‘자꾸’의 쪽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가정도 별 의미가 없다. (6ㄴ´´)와 같은 경우는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7) 및 (ㄴ´)과 같이 ‘잡’이나 ‘자’가 ‘대’로 바뀌는 변화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꾸’와 ‘대꾸’로의 변화를 ‘대꾸’, 즉 ‘대-+-고’로부터 시작해도 상황은 특별히 나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기원을 ‘잡-+-고’나 ‘대-+-고’로 간주할 때 그렇지 기원이 완전히 명명백백하지는 않은 지금로서는 (6ㄱ)의 경우가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를테면, 기원적으로 ‘ㄷX’로부터 출발한다면, 구개음화 등에 의해 ‘자X’가 되고 ‘ㅈ>ㅊ’에 의해 ‘대X’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중세국어에서는, 기원적인 ‘ㄷX’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6)에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sup>25)</sup>

방언형의 음소적 성격을 보아서도 이 둘이 동일 기원으로부터 형성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崔鶴根(1978 : 1125)에 의지할 때, ‘자꾸’의 방언은 한 지역(충남 당진)에만 출현하는 극히 예외적인 평음형(‘자꾸’)을 제외하고는 경음형(‘자꼬, 자꾸, 차꼬’ 등)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데 반해 ‘대꾸’의 방언은 평음형(‘대고, 대꾸’ 등)과 경음형(‘대꾸, 다꾸’ 등)으로 양분되는데,<sup>26)</sup> ‘자꾸’의 방언에서만 보이는 ‘ㅂ’(제주방언의 ‘잡고’)과 함께 이와 같은 차이도 ‘자꾸’와 ‘대꾸’의 기원이 동일함을 주장하기 어렵게 한다.

‘자꾸’와 ‘대꾸’가 동일 기원으로부터 형성된 것이기 어렵다면 우리는 이들의 기원이 별개인 쪽으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 앞 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꾸’의 기원을 ‘잡-+-고’로, 그리고 ‘대꾸’의 기원을 ‘대-+-고’로 보려 함에 있어, 마침 의미가 유사한 동사 ‘잡-’과 ‘대(〈다히〉)-’를 발견할 수 있어 희망이 보인다. 『표준』에 서론에 가까운 ‘잡-’의 의미 중 하나로 “屠”가 제시되어 있고(“**1** 「3」 짐승을 죽이다.”), 『큰 사전』(한글학회, 1957, 을유문화사, 2567쪽)에 동음어의 하나로 “屠”를 뜻하는 ‘잡-’이 표제어로 당당히 등재되어 있는데, 유사한 의미의 동사 ‘다히(〈대〉)-’가 중세국어와 근대국어로<sup>27)</sup> 존재하는 것이다.<sup>28)</sup>

25) ‘도적(도죽)’과 ‘도둑’의 대응이 이와 유사하나 ‘도둑’의 형성에 개입되어 있는 변화가 오리무중이어서 더 나아갈 여지가 없다.

26) ‘자꾸’의 방언과 ‘대꾸’의 방언이 보이는 이와 같은 음소적 차이에 대한 해석은 본고 5장에서 이루어진다.

음운사적 지식을 활용하면 현대국어의 ‘대-’는 중세국어에서 ‘대-, 딛-, 다이(의)-, 딛이(의)-, 다히(회)-, 딛히(회)-’ 정도로 나타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히-’만 셋 존재한다. 다음은 『李朝語辭典』(197쪽) 등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예는 중세국어의 것만 제시함).

(7) 중세국어의 동사 ‘다히-’

ㄱ. 다히- ㉞ 잡다 ㄱ 어딘 사르미 해 고기 다히며 고기 낫는 딛 수뻬는니(賢多隱屠釣)(『杜詩諺解』 10 : 11), 열이홉 히를 혼 갈로 쇼 다효딛(十九年以一刀解牛)(『圓覺經諺解』 하2-2 : 10)

ㄴ. 다·히- ㉞ 대다 ㄱ 부뻬 소늘 손소 자브샤 즈갓 가스매 다히시고(『月印釋譜』 10 : 9), 올흔 무릅 사해 다혀(右膝著地)(『楞嚴經諺解』 1 : 76)

ㄷ. 다·히- ㉞ 때다 ㄱ 불 다히게 흥며(燒火)(『救急方諺解』 상 : 15)

음운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현대국어의 ‘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7ㄷ)을 제외하고 나면 (ㄱ)의 ‘다히-’와 (ㄴ)의 ‘다·히-’가 남는데, 여기서 전자가 “잡다”, 구체적으로는 “屠” 혹은 “解”의 뜻을 가져 주목을 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표준』에서 동사 ‘잡-’의 의미 중 하나로 제시된 “짐승을 죽이다”(113)와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기원적인 관점에서 의미를 둘로 나눠 ‘자꾸’와 ‘대꾸’의 기원을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위 (7ㄱ)의 “짐승을 죽이다”가 그 하나이고, 본고 1장의 “to continue, to be long”과 “to connect”가 그 다른 하나이다.

우선, “짐승을 죽이다(屠)”부터 보자. “짐승을 죽이다”는 『표준』의 기술인데 같은 『표준』에서 동일한 의미로 파악되는 관련어들로 관용구 ‘사람(을) 잡다’(“11 사람을 죽이다.”), ‘사람잡이하다’(“사람을 마구 가두거나 해치거

27) 현대국어에서는 “屠”의 의미를 가진 ‘대-’는 없다.

28) 단적으로, 같은 ‘宰’의 이해로 동사 ‘잡-’이 쓰인 경우와 ‘다히-’가 쓰인 경우를 모두 볼 수 있다. ‘잡-’ : “너일 양과 뚝들 잡아”(來日可宰猪羊血, 『三國志』 1 : 56), ‘다히-’ : “或 羊과 뚝들 버혀 다히며”(或至割宰羊豕, 『警民編諺解(奎章閣本)』 36). 『三國志』의 예는 朴在淵(2002 : 8337)에서 가져온 것으로서 『三國志』는 18세기 낙선재 필사본 자료이다.

나 죽이다.”), ‘잡아먹다’(“[1] 동물을 죽여 그 고기를 먹다.”) 등이 있어 ‘잡-’에 “짐승을 죽이다”의 의미가 있음을 의심할 수 없다. 중세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물 자바먹다가’, 『三綱行實圖』 忠 : 1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세국어에서는 ‘다히-’에도 유사한 의미가 있다. ‘자꾸’와 ‘대꾸’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잡-’과 ‘대(〈다히〉)-’도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상할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특수한 의미를 공유하되 형태적으로 관련된 각각의 부사가 엉뚱한 의미를 다시 공유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연 이상의 일일 듯도 하다.

다음으로, “to continue, to be long”과 “to connect”를 보자. 이 둘은 모두 ‘잡-’의 알타이 조어(祖語)의 의미로서, 전자는 Ramstedt(1949 : 23)가 추정 한 의미이고 후자는 Starostin · Dybo · Mudrak(2003 : 1528)이 추정한 의미이다. 이 의미는 앞 2장의 (4)에서 보았던 보조용언 ‘대-’와 접미사 ‘-대-’의 의미와 유사할 뿐 아니라, 본고의 ‘자꾸’나 ‘대꾸’와도 잘 이어진다.

이와 같이 동사 ‘잡-’과 ‘대-’의 의미적 공통점 둘 모두 인상적이나, 전자의 경우에는 “짐승을 죽이다”와 “頻”의 거리가 너무 먼<sup>29)</sup> 문제가 있어 선뜻 동의하기 어려워 ‘자꾸’ 및 ‘대꾸’와 관련하여서는 후자의 손을 들어 주기 쉽다. 또 앞 3장에서 ‘달구, 들구, 달쿠’로부터 추론한 어기 ‘달-’의 의미(“물건을 잇대어 붙이다”)를 고려하여서도 후자의 의미로부터 우리의 ‘자꾸’와 ‘대꾸’가 나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동사 ‘달-’에 “짐승을 죽이다”와 유사한 의미가 있지 않는 한, ‘잡-’과 ‘대-’ 그리고 ‘달-’을 의미적 공통점으로 함께 묶기 어렵고 “to continue, to be long”과 “to connect”가 “물건을 잇대어 붙이다”(‘달-’)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이다.<sup>30)</sup> 이렇게

29) 중세국어에서 “연장, 쟁기, 그릇”을 뜻하는 ‘자본’과 “世間事”를 뜻하는 ‘자본일’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래저래 ‘잡-’은 의미적으로 특이한 존재임은 분명하다.

30) 현대국어의 동사 ‘잇대-’가 한 방증이 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원적으로 ‘잇대-’의 ‘대’는 ‘잇’ 뒤에 어미가 없이 바로 ‘대’와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보조용언이라 하기 어렵고, 접미사 ‘-대-’는 동작성 어근과 결합한다는 점(宋喆儀 1992 : 189~191)과 접미사 ‘-대-’의 어기는 1음절로 된 것이 없다는 점(趙南浩 1988 : 58, 66)에서 ‘잇대-’의 ‘대’는 접미사 ‘-대-’라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잇대-’는 이른바 어간합성어라 할 수 있다(‘잇대-’는 ‘닛다히-’의 형태로 근대국어에서 확인되는데 이선영(2006 : 128)은 이 ‘닛다히-’를 ‘닛+다히-’와 같이 어간끼리 직접 결합해 형성된 합성어로 보고 있다). 그런데 근대국어에서야 비로소 나타나는 ‘닛다히(〇잇대)-’는 “屠”의

되면 부사 ‘대고’의 기원을 ‘대-(〈다히-, “使觸”, (7ㄴ))+ -고’로 보는 것이 되는데 이는 보조용언 ‘대-’와 접미사 ‘-대-’의 기원을 ‘다히-’로 본 이현희(2009 : 185)의 견해(“닿다(接, 觸, 着) → 다히다(닿게 하다) → 대다(본용언, 닿게 하다, 잇닿게 하거나 잇달다) → 대다(보조용언, 행동을 반복하다) → -대다(접미사, 반복)”)와 궤를 같이하는 셈이지만 ‘잡-’의 “to continue, to be long”과 “to connect”의 의미는 알타이 조어적 의미여서 우리의 ‘자꾸’와는 시간적 간극이 너무 크다는 점이 작지 않은 문제가 된다. 동사 ‘잡-’에 이와 같은 의미가 잔존해 있었을 때 부사 ‘잡고(자꾸)’가 형성되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를 한 가능성 정도로만 보는 것이 현명한 태도일 것으로 생각된다.

### 5. ‘자꾸’의 음장과 혼호

‘자꾸’를 ‘잡-+-고’에서 온 것으로 볼 때의 문제로 동사 ‘잡-’의 활용형 ‘잡고’와 ‘자꾸’의 운소, 즉 성조와 음장의 불일치를 들 수 있다. 『표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준어에서만 아니라 방언에서도 둘 모두 어두음절이 단음 이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예를 들어, 경북남부방언을 중심으로 한 이 둘의 운소 실현을 보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8) 경북남부방언의 활용형 ‘잡고’와 부사 ‘자꾸’의 운소

|    |           | 성조     | 음장     |
|----|-----------|--------|--------|
| ㄱ. | ‘잡고’(활용형) | 고저(高低) | 단단(短短) |
| ㄴ. | ‘자꾸’(부사)  | 저저(低低) | 장단(長短) |

의미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현대국어 ‘잇대-’, 특히 활용형 ‘잇대어’가 가지고 있는 “계속”의 의미(“『2』 ((주로 ‘잇대어’ 꼴로 쓰여)) 끊어지지 않게 계속 잇다.”)를 이미 가지고 있다 (“꽤히 돌디 문혀여 문져 나니 부를 제야 닛다혀 조발 ㄱ툃 거시 빈 틈에 도다 도련고 물그니는 길혀니라”, 『諺解痘瘡集要』 상 : 24). 여기에서도 ‘대고’의 ‘대-’가 ‘닿-’의 사동사 ‘다히(대)-’로부터 온 것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위 (8)의 (ㄱ)은 김주석·최명옥(2001 : 579)의 경주방언이고 (ㄴ)은 정석호(2007 : 539)의 영천·경주·포항의 방언이다. 이 자료에서, 활용형 ‘잡고’의 성조는 ‘고저(HL)’인 데 반해 부사 ‘자꼬’는 ‘저저(LL)’로 실현되고 있고, 활용형 ‘잡고’의 첫음절은 단음인데 부사 ‘자꼬’의 첫음절은 장음으로 실현되고 있다.<sup>31)</sup> 이렇게 활용형 ‘잡고’와 부사 ‘자꼬’는 성조와 음장 둘 모두에서 다르다. 이 점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자꼬( )자꾸’가 동사 ‘잡-’의 활용형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하기 조금 곤란하다.

성조와 음장 중 음장의 차이는 극복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국어는 전반적으로 부사에 표현적 장음이 활발하게 실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정인호 2005 : 299) 우리의 부사 ‘자꾸’에도 표현적 장음화를 통해 부정적 ‘정도의 높임’(김창섭 1991 : 747)이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32)</sup> 실제로 전남방언에서는 ‘자꼬’의 첫음절이 ‘자 : 꼬, 자 : 꼭, 자 : 꾸’(崔鶴根 1978 : 1125)나 ‘차 : 꼬’(정인호 2005 : 298)와 같이 장음으로 실현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활용형 ‘잡고’와 부사 ‘자꾸’의 음장 차이는 그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는 듯도 하지만 표현적 장음이라는 것이 정도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이 꼭 만족스럽지만은 않다. 더욱이 성조의 문제로 들어가면 그 해결은 더욱 난망하다. 활용형 ‘잡고’와 부사 ‘자꾸’ 이 둘만을 놓고서는 ‘자꾸’를 둘러싸고 있는 운소의 문제는 더 나아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두 갈래의 설명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잡-+-고’로부터의 ‘자꾸’의 형성, 즉 활용형의 부사화가 이루어진 지 오래되어 ‘잡고(잡-+-고)’와 ‘자꾸’ 간에 운소적 차이가 생겼다고 보는 방법이다. 이는 활용형의 부사화가 보편적인 현상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과정에서 원래의 활용형이 가지던 성격이 부분적으로 사라지거나 변하였다고 보아도 이상하지 않다는 점에 기반을

31) 경북남부방언에서 ‘자꼬’는 ‘저고(LH)’와 ‘단단(短短)’으로도 실현된다.

32) ‘자꾸’가 표현적 장음화를 겪을 수 있음에 반해 ‘자주’는 그렇지 못한 것은, 전자가 부정적 맥락에서 쓰이기 쉬워 그 부정의 정도를 높이기 쉬운 데 반해 후자는 그렇지 않은 점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단(2017 : 22)의 “빈도부사 ‘자꾸’는 문장 안에서 어떤 행동이나 구절에 대해 그 행동의 빈도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등급표지의 구실을 하는 부사로서 언어표현중에 비교적 주관성이 큰 영역이라 변화도 심하다라 할 수 있다.”(원문 그대로 인용함)라는 언급을 참고할 수 있다.



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부사로서의 ‘잡고’나 ‘자꾸’가 근대 이전 문헌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궁하기 어렵지만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성조와 관련된 문제는 여기에 맡겨 두기로 한다. 다른 하나는 위 3장에서 보았던 ‘대꾸’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한다.

방언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혼효형이 생기는 일은 흔하므로 우리의 ‘자꾸’형과 ‘대꾸’형이 만나 혼효형이 생기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예로, 평북방언의 ‘다자꾸’(金履浹 1981 : 156, “부득부득 ①글쎄 비가 오는데 다자꾸 떠나 갓땀무다(떠나겠답니다). ②없는 돈을 다자꾸 내래니(내라고 하니) 정말 답답허구나(답답하구나).”)를 들 수 있다. 金履浹(1981 : 156)의 “부득부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꾸’ 및 ‘대고’와 ‘다자꾸’의 의미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 ‘다자꾸’는 ‘자꾸’와 황해도와 함경북도의 ‘다꾸’의 혼효형일 가능성이 크다.

위 3장의 (5)에 제시된 ‘다꾸, 대이꾸, 댐꾸, 대꾸’도 혼효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끝음절에 있는 경음은, ‘잡-+-고’에서와는 달리, ‘대-+-고’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꾸’로부터 받아들인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sup>33)</sup> ‘자꾸’의 방언에는 \*‘자고’ 등과 같은 평음형이 극히 희소한 데 반해<sup>34)</sup> ‘대고’의 방언에는 평음형과 경음형이 양적으로 대등하게 나타나는 것이 혼효의 개연성을 암시한다.

이와 같이 혼효형이 다수 생성된, ‘자꾸’형 방언과 ‘대고’형 방언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대고’의 장음이 ‘자꾸’의 방언에 영향을 미친 결과가 ‘자꾸’형 방언 첫음절의 장음이라고 보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위에서 표현적 장음화를 통한 부정적 ‘정도의 높임’(김창섭 1991 : 747)을 ‘자꾸’의 장음과 관련시켰는데<sup>35)</sup> 여기에 ‘대고’의 장음이 추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sup>36)</sup>

33) ‘댐꾸’의 ‘댐’은 ‘대고’형과 ‘달꾸, 달꾸, 들꾸’의 혼효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다꾸’의 ‘다’는, (5사)의 충남방언 ‘다이구, 대이구, 대이꾸’ 등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대고’형의 첫음절 이중모음의 y가 탈락한 결과로 보인다.

34) 충남 당진에서 ‘자꾸’의 방언형으로 ‘자꾸’가 나타나는데(崔鶴根 1978 : 1125) 이는 극히 예외적인 형태라 생각된다.

여기서의 한 가지 문제는 ‘대고’형 방언이 경북 북부(영주, 봉화, 안동)를 제외한 경상방언과 전북 북부(군산)를 제외한 전라방언에는<sup>37)</sup> 분포하지 않음에도 이 지역에서 ‘자꾸’형 방언의 첫음절이 장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이다. 첫음절이 장음인 ‘자꾸’가 전라방언과 경상방언에 전파되었다고 보든지 아니면 표현적 장음의 영향이라고 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지역에서 첫음절이 장음으로 실현되는 ‘자꾸’의 분포가 파편적이고 산발적이어서 표현적 장음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6. 결론

지금까지 부사 ‘자꾸’의 기원을 의미가 유사한 다른 부사들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본고에서 논한 바를 간략히 요약한 뒤, 남은 문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자꾸’와 ‘자주’는 첫 음절이 동일하고 의미도 유사하여 어원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쉽다. 하지만 중세국어에 이미 나타나고 어원도 명확한 ‘자주

35) ‘대꾸, 대이꾸’ 등의 ‘대고’형에서는 이 부정적 정도의 높임이 경음화로 나타났다 할 수 있고, 반대로 ‘자꾸’의 방언에 \*‘자구’, \*‘자고’와 같은 평음형이 거의 없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요컨대, 이 ‘자꾸’형과 ‘대고’형의 혼효에서 음소적으로는 ‘자꾸’형의 영향력이 컸고 운소적으로는 ‘대고’형의 영향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36)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반대로 첫음절이 단음인 ‘대고’형 방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위 3장의 (5) 참고). ‘대고’형의 첫음절은 장음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몇 있는데, 우선, 동사 ‘달-’ 자체가 단음이므로 ‘달구, 들구, 달꾸’의 단음은 문제될 것이 없고, ‘대이꾸’는 이중모음의 단모음화가 완료되지 않은 충남의 방언이어서 역시 문제될 것이 없고, ‘뿔구’와 ‘뿔꾸’도 혼효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논외로 하면, 남은 것은 ‘대꾸(함북, 황해), 대구(경기, 경북 북부(안동)), 대고(강원)’ 셋이다. 음장 구별이 없어져가는 전반적인 상황과 ‘대 : -’라는 기원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져가는 상황을 이들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장음으로 해석되는 방언형은, 장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예구, 대 : 구, 대 : 꾸’와 그렇지 않은 ‘대이구, 대이꾸’로 나누어지는데, 후자 ‘대이구’와 ‘대이꾸’는, 다소 자의적인 이해일 우려가 없지 않으나 金鳳國(2004)와 김현·이영환(2015)의 논의에 의지하면, ‘대예구’와 음성적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도 장음형 방언으로 보고자 한다.

37) 본고의 각주1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북 군산(옥구) 출신의 작가 채만식의 『濁流』에 ‘대고’와 ‘대꾸’가 나타난다.

(〈즈조〉와는 달리 ‘자꾸’는 어원이 불명확하다. ‘아’와 ‘으’가 구분되는 제주 방언에서 ‘자꼬’(“자꾸”)와 ‘즈주’(“지주”)로 첫음절이 달리 나타나므로 표준어 ‘자꾸’와 ‘지주’의 기원적 어기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주’의 기원을 ‘जू-’에 부사파생접미사 ‘-오’가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것에는 어떠한 의문도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자꾸’의 기원이다. ‘자꾸’는 개화기 자료와 현대 제주방언에서 ‘잡꼬’로 나타나서 활용형 ‘잡-+-고’에 기원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 본고는 ‘자꾸’에 대한 이와 같은 기존의 기원론에 재고의 여지가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첫째, ‘-고’에 의한 활용형이 부사가 될 수 있음을 보았고(2장), 둘째, ‘잡꼬’가 기원적으로 어미 ‘-고’에 의한 활용형일 가능성이 큼을 주장하였고(3장), 셋째, 기원적으로 ‘잡고’는 “to continue, to be long”과 “to connect”를 뜻하는 알타이 조어 ‘잡-’의 활용형일 가능성을 상정해 보았고(4장), 넷째, 현대 방언에서 적지 않게 보이는 ‘자 : 꾸’의 장음은 ‘대고’형 방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5장).

이쉬운 점이 적지 않다. 첫째, ‘잡고, 대고, 달고’를 포함하여 2장에서 제시한 ‘-고’ 활용형들의 어떤 점이 자신을 부사가 될 수 있게 하였는지 말하여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둘째, ‘자본것’과 ‘자본일’ 등의 의미적 특이성을 생각하면 4장에서 ‘잡-’과 ‘다히(대)-’의 공통적인 의미 “屢”와 관련하여 더 들어가지 못한 점도 마음을 무겁게 한다. 셋째, 4장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잡-’의 “to continue, to be long”과 “to connect”의 의미는 알타이 조어적 의미여서 우리의 ‘자꾸’와는 시간적 간극이 너무 큰데, 이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지 못하였다. 넷째, 5장에서 ‘잡고’와 ‘자꾸’의 성조가 다른 점을 미완의 문제로 남겨 둔 점도 가볍지는 않다. 다섯째, 부사 ‘잡고(자꾸)’로 바뀐 활용형 ‘잡꼬’의 어간은, 알타이조어 운운할 것 없이, “執”을 뜻하는 ‘잡-’일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그는 나를) 잡고 놓이주지 않으려 하였다.” 정도의 문장으로부터 부사 ‘잡꼬’가 형성되었을 수도 있겠는데, 본고에서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관련 부사, 즉 ‘대고, 달고’에 의지한 설명을 추구하였을 따름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 생각해 보고자 한다.

## ■ 참고문헌

- 곽충구, 『중앙아시아 이주 한민족의 언어와 생활 -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태학사, 2011.
- 구본관,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태학사, 1998.
- 김계곤, 『경기도 방언 채집 - 부천군 대부도(大阜島) 방언 -』, 『畿甸文化研究』 2, 畿甸文化研究所, 1973, 31~42쪽.
- \_\_\_\_\_, 『경기도 사투리 연구』, 박이정, 2001.
- 김병제, 『방언사전』,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0.
- 金鳳國, 『高母音 脫落 現象과 관련된 몇 問題』, 『國語學』 43, 國語學會, 2004, 37~61쪽.
- 김양진, 『우리말 수첩』, 정보와사람, 2011.
- 김원진, 『신라 향가의 어학적 분석』,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2000, 31~103쪽.
- 金履洙, 『平北方言辭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 김주석·최명옥, 『경주 속담·말 사전』, 한국문화사, 2001.
- 김창섭, 『'하다' 형용사에서의 표현적 장음』,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 민음사, 1991, 744~762쪽.
- 김 현·이영환, 『모음 간 /j/의 음성 실현과 지각 판단』, 『國語學』 75, 國語學會, 2015, 39~58쪽.
- 남기심·고영근·유현경·최형용, 『전면개정판 표준 국어문법론』, 한국문화사, 2019.
- 류창석, 『침절 안갠디겨』, 영남사, 2007.
- 리 단, 『조선어 빈도부사 '자주'와 '자꾸'의 의미와 수식관계』, 『중국조선어문』 209,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17, 15~23쪽.
- 리운규·심희섭·안 윤, 『조선어방언사전』, 연변인민출판사, 1992.
- 박선옥, 『국어 보조동사 '대다'의 의미 연구』, 『한국어 의미학』 14, 한국어의미학회, 2004, 149~167쪽.
- 박성중·전혜숙, 『강릉 방언 사전』, 태학사, 2009.
- 朴在淵, 『中朝大辭典』, 鮮文大學校 出版部, 2002.
- 배영환, 『'코'말음 부사에 대하여』, 『國語文學』 48, 국어문학회, 2010, 63~87쪽.
- 백문식, 『우리말 어원 사전』, 박이정, 2014.
- 宋喆儀, 『國語의 派生語形成 研究』, 태학사, 1992.
- 劉昌惇, 『語彙史 研究』, 宣明文化社, 1971.
- 이걸재, 『공주말 사전』, 민속원, 2009.
- 이경진, 『강원도 영동남부지방 방언』, 藝文社, 2002.
- 이기갑·고광모·기세관·정제문·송하진, 『전남방언사전』, 태학사, 1998.
- 李基文, 『語源 研究의 뒤안길』, 『韓國語研究』 9, 韓國語研究會, 2012, 25~111쪽.
- 이상규, 『경북방언사전』, 태학사, 2000.
- 이선영, 『국어 어간복합어 연구』, 태학사, 2006.
- 李賢熙, 『中世國語 構文研究』, 新丘文化社, 1994.
- \_\_\_\_\_, 『'조초'의 文法史』, 『震檀學報』 107, 震檀學會, 2009, 129~175쪽.
- 이현희, 『보조용언의 범주 분화와 접미사로의 이동』, 『國語學』 54, 國語學會, 2009, 165~196쪽.
- 임홍빈, 『한국어사전』, 랭기지 플러스, 2007.
- 장윤희, 『고대국어의 파생 접미사 연구』, 『國語學』 47, 國語學會, 2006, 91~144쪽.

- 전경미, 『람스테트의 Studies in Korean Etymology에서의 몇가지 誤謬에 대하여』, 『韓日語學論叢』, 國學資料院, 1995, 587~610쪽.
- 정석호, 『경북동남부 방언사전 - 영천 · 경주 · 포항을 중심으로 -』, 글누림, 2007.
- 정승철, 『방언의 발견』, 창비, 2018.
- 정인호, 『전남 화순지역어에서의 운율 및 그와 관련된 음운변화』,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2005, 277~304쪽.
- 鄭在永, 『高麗時代의 {-이} 부사와 부사형』, 『國語 語彙의 基盤과 歷史』, 태학사, 1998, 737~784쪽.
- 趙南浩, 『現代國語의 派生接尾辭 研究 - 生産力이 높은 接尾辭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조항범, 『우리말 활용 사전』, 예담, 2005.
- 崔鶴根, 『韓國方言辭典』, 玄文社, 1978.
- 최형용, 『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 - 통사적 결합어를 중심으로 -』, 太學社, 2003.
- 玄平孝, 『濟州島方言研究 第一輯 資料篇』, 精研社, 1962.
- 황대화, 『황해도방언연구』, 한국문화사, 2007.
- Ramstedt, G.J., *Studies in Korean Etymology*, Suomalais-Ugrilainen Seura, 1949.
- Starostin, S. · Dybo, A. · Mudrak, O.,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Altaic Languages*, Brill, 2003.

## A Study on the Origin of adverb ‘*jakku*’

Lee Sangsin\*

This study attempted to reconsider the existing view on the origin of adverb ‘*jakku*’. First, I thought that the ending ‘-*go*’ conjugational form could be adverb. Second, I insisted that ‘*japko*’ is likely to be the ending ‘-*go*’ conjugational form. Third, it was presumed that ‘*japko*’ is a conjugational form of stem ‘*jap-*’, which means “to continue, to be long” and “to connect”. Fourth, the long vowel of ‘*jakku*’ seen in the dialect was considered to be influenced by the ‘*daego*’ type dialect.

**Key words**: *jakku*, *jaju*, *japko*, etymology, conjugational form, adverb, *daego*

논문투고일: 2020년 7월 22일 || 심사완료일: 2020년 8월 11일 || 게재확정일: 2020년 8월 18일

---

\* Ajou University